

# 朴璣의 《鋤莠歌》研究

鄭 明 世

## <目 次>

I. 緒 論	IV. 《鋤莠歌》
II. 出典의 書誌	1. 原 文
III. 朴 瑣	2. 創作背景
1. 家 系	3. 內 容
2. 生涯 및 爲人	4. 形 式
3. 文學遺產	V. 結 語

## I. 緒 論

現傳 時調作家中에서 父子 兩代에 걸쳐 作品을 남긴 이는 李賢輔와 李叔樸,<sup>1)</sup> 朴就文·朴繼叔,<sup>2)</sup> 蔡灝·蔡耆玉<sup>3)</sup> 等이 있다.

그런데 아직 學界에 紹介되지 아니한 《五倫歌》8首를 남긴 朴善長과<sup>4)</sup> 그의 長子 朴璣의 境遇가 있어, 筆者는 本攷를 통해서 이에 대하여 具體적으로 言及하고자 한다.

이 朴璣의 時調에 대하여는 이미 同學 李相寶, 姜鎰燮 두 분에 의하여 簡單한 言及이 있기는 했으나,<sup>5)</sup> 作家名, 收錄文獻의 紹介에 그친 程度이다.

- 1) 沈載完, 「汾川講好歌攷」, 「東洋文化」第九輯, (慶山: 嶺南大 東洋文化研究所, 1969), pp. 81~97.
- 2) 李樹鳳, 「赴北日記攷(1)」, 「국어국문학연구」제12집, (慶山: 嶺南大 國語國文學科, 1970), pp. 37~52.
- 3) 洪在杰, 「石門亭題詠詩歌攷」, 「曉大研究論文集」第23卷, (大邱: 晓星女大, 1981), pp. 1~38.
- 4) 林仙默, 「水西와 『五倫歌』」, 「國文學論集」第2輯, (서울: 檜國大 國語國文學科, 1968), pp. 71~82.
- 李相寶, 「朴善長의 五倫歌研究」, 「明知大論文集」第9輯, (서울: 明知大, 1976), pp. 75~98.
- 5) 姜鎰燮, 「古時調의 現傳作品數에 대하여」, 韓國言語文學會 發表要旨(1966. 4. 9). 參照。

李相寶, 註(4)의 論文集, p. 98.

年前에 筆者는 成均館大學校와 啓明大學校 圖書館에서 朴璥의 時調作品 《鋤莽歌》가 收錄된 「東川逸稿」를 發掘하고, 그 原文을 「歷代時調全書」未收錄 新資料로 看做하여 研究對象으로 삼은 바가<sup>6)</sup> 있다. 그 후 이 朴璥의 時調에 關聯된 傍證資料를 더 많이 蒐集함에 따라 舊稿의 補完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런 緣由로 本跋는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本跋의 内容은 먼저 《鋤莽歌》가 收錄된 原典의 書誌的 狀況을 詳히고, 이어서 作家에 대한 考察로 朴璥의 家系, 生涯 및 爲人, 文學遺產을 整理해 보았으며, 作品에 대한 考察에서는 原文을 紹介하고, 創作背景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作品의 内容, 時韻로서의 形式上 特徵을 究明하는 順序로 展開하고자 한다.

## II. 出典의 書誌

「東川逸稿」는 光海朝人 朴璥의 詩文을 收合해 놓은 文集으로서, 柳必永의 序文과 後孫 朴瑛澤·朴世鉉의 跋文을 첨부하여 그의 死後 三百餘年반인 1915年(乙卯年)에 刊行되었다.<sup>7)</sup>

한편 筆者가 調査한 「東川逸稿」의 書誌的 狀況은 아래와 같다.

3卷 1冊

木版本, 縱 31.7 cm, 橫 21 cm

表題名 東川逸稿, 內題名 東川集

韓裝, 五間裝冊, 黃色表紙, 內廓 縱 20.3 cm, 橫 16 cm

單邊, 序文 6行, 本文 10行, 1行 17字

上端 黑口, 楷紙.

그리고 「東川逸稿」의 内容을 編次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에 적은 바와 같다.

序文(柳必永)

目錄

6) 指稿, '古時調文獻의 研究',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慶山: 嶺南大, 1982), pp. 38~40.

7) 「東川逸稿」卷之三 跋文 參照, 朴璥의 後孫들은 그의 藏稿를 모아서 전작 文集을 刊行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貧寒한 家勢로 인해 高宗代에 와서야 西坡 柳必永(安東 禮安人)의 序文을 얻어 「東川逸稿」의 刊行을 본 듯하다.

## 卷第一

- 歌詞 鋤莠歌  
 辭 傷春辭  
 詩 五言絕句 偶吟 外 13首  
       五言四韻 自嘲 外 24首  
       七言絕句 山中即事 外 45首  
       七言四韻 咏松 外 23首

## 卷第二

- 長文 五言長篇 記病 外 7篇  
       七言長篇 感吟 外 9篇  
 書 答郭靜甫  
 記 蒙泉書堂記  
 雜著 烟竹贊 外 2篇  
 祝文 紹修書院遺齋周先生麟享告由文 外 1篇  
 祭文 祭寒岡鄭先生文 外 7篇  
 上樑文 伊山書院移建上樑文 外 1篇

## 卷第三

## 附錄

- 節行摭錄  
 行狀  
 墓碣銘  
 家狀  
 跋 朴瑛澤·朴世鉉

위에 紹介한 文集의 内容中에서 朴徽의 時調 1首는 《鋤莠歌》다. 題目하여 卷第一 歌詞欄에 收錄되어 있다. 他文集과 달리 卷頭에다가 國文作品을 排列한 것은 「東川逸稿」가 가지는 特色<sup>8)</sup>이다.

즉 「東川逸稿」는 時調를 卷頭 歌詞欄에 실어 國文詩歌를 崇尚한 編纂意識을 보이고 있어 注目된다.

8) 抽稿, 「古時調文獻의 研究」, 「學位論文概要集」第五輯, (慶山: 嶺南大, 1983), p. 147.

## III. 朴 磉

## 1. 家 系

앞의 編次에서 紹介한 後孫 朴瑛澤이 쓴 「家狀」에 의거하여 朴璣의 家系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謂는 磉이요 字는 栗甫, 號는 東川이다. 始祖는 務安에서 出生하였다. 鼻祖는 謂가 進이니, 高麗朝에 壯元으로 科學에 及弟하여 벼슬이 國學典이었다. 또 東川의 高祖는 謂가 之蒙이시니, 副司直이요, 司僕正을 除受받았다. 高祖는 어려서 從叔父의 任地인 盈德에서 자랐고, 咸吉道 都事 盈德 朴氏宗文의 땅님을 취하여 盈海에서 살았다. 祖의 謂는 全이요, 文科에 及弟하여 正郎까지 올랐고, 號를 松坡라 했다. 松坡公이 世上을 떠나니 婦人 朱氏가 어린 의아들을 테리고 서울에서 올진 또는 榮川으로 居處를 옮겨 살았다. 그리고 三松 南夢鰲 門下에서 學問에 힘쓰게 되니, 後日에 名儒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 父親의 謂는 善長으로 文科에 及弟하여 慶尙道 都事を 지냈고, 都承旨로 任命되었다. 文章에 뛰어나고 行實에 모범을 보여 鄉里의 추양을 받았다. 그는 또한 龜鸞書堂을 重修하였다. 姦是 淑夫人 英陽 南氏인즉 三松 南夢鰲의 땅님이시다. 東川은 萬曆癸酉 11月 榮州郡 花川里에서 태어났다.<sup>9)</sup>

## 2. 生涯 및 爲人

作家의生涯를 살피는 데는 그의 年譜가 作成되어야 하고, 그밖의 補助資料를 援用해서 이들을 年代順으로 排列할 때에 그의 生涯 및 爲人을 具體的으로 詳힐 수가 있다. 그러나 「東川逸稿」에는 「年譜」가 收錄되지 않았기 때문에 東川 朴璣의 履歷은 仔細하지 못하다. 그것은 그의生涯가 京師의 華職에서 顯達한 官名을 떨치지 못했고, 오직 鄉里인 榮州에서 安貧樂道의 生活로 無意求進하다가 晚年에야 剈知 程度의 贈職을 歷任한 채 마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生涯는 이를 父子 朴善長·朴璣 兩代에 걸쳐 모두 該當되는 事實이다.<sup>10)</sup>

9) 「東川逸稿」卷之三, 12面—13面 參照.

10) 李相寶, 앞의 論文 p.77 參照.

그러면 朴璥의 生涯를 「家狀」, 「行狀」, 「墓碣銘」과 「務安朴氏世譜」<sup>11)</sup>를参考하여 整理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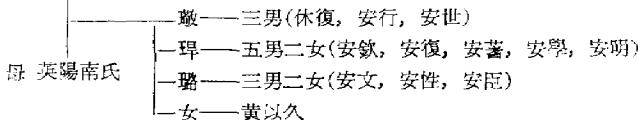
그는 宣祖 6年(1573年) 11月 父親 水西 朴善長과 母親 英陽南氏 사이의 3男 1女 가운데 長男으로 出生하였다. 그의 家庭은 先考 때에 榮州郡 北花川에 옮겨 와서 살았는데, 그도 이곳 花川里 舊第에서 出生하였다.

그는 生出하면서부터 남달리 체모가 비범하고 눈동자에 神彩가 빛하였고, 岐嶷<sup>12)</sup>와 志氣가 비범, 高邁<sup>13)</sup>하여, 幼時의 行動이 벌상치 않아 보는 이로 하여 그의 將來를豫言하게 하였다고 「行狀」은 記錄해 놓고 있다. 그는 鄉里인 榮州에서 三松 南夢鰲<sup>14)</sup>로부터 學業을 두었음은 前述한 바 있다.

집안에서는 父親은 물론이고, 祖母 熊川朱氏까지도 성심껏 학업변을 지도하였다. 하지만 그도 밤에 잠조차 자지 아니하고 달빛아래 뜰을 거닐면서 讀書를 할 程度이었다. 남달리 學業에 대한 취미와 열성을 가진 그는 就學以後 平生동안 큰 연고없이 讀書를 하지 않는 날은 없었으며, 때로는 몇 날 동안 뜬 눈으로 새우면서 學業에 專念했다. 이러한 때에 그는 잠간 동안 몇 篇의 글을 보고 그대로 의워 平生을 잊지 않는 놀라운 재주도 있었다. 따라서 그는 十餘歲를 지남에 이티 文章이 어느 程度로 完熟해졌고, 各種 經典의 一讀을 마치고, 그 깊은 뜻에 心醉되었다. 이리하여 스승 南先生 夢鰲門下에 많은 人士들이 모여서 글을 배운 가운데 그는 오직 鄉人의 期待를 한 몸에 모았다.

朴璥은 天性이 端厚하고 寬容한 人物이었기 때문에 매양 子弟들을 和氣로서 상대하였다. 그의 두 아우 珪과 璞와의 友愛는 더욱 돋독했다. 參考로 그의 家族狀況을 보면 아래와 같다.

#### 父 朴善長



11) 本放에서는 아래 世譜을 參考하였다.

國立圖書館 所藏本, 「務安朴氏世譜」, 17卷 20冊, 石版本, 冊大 34.5 cm × 23.8 cm, 1928年刊.

12) 字 景群, 號 三松, 退溪門人。(1528~1592).

그의 文集으로는 「三松逸稿」單卷(1809年·純祖 9年刊)이 전하고 있다. 門下에는 金蓋國, 金九鼎, 翟復古, 李興門, 金泰時, 朴善長 等이 있다.

李完載, 「嶺南出身 陶山及門諸子攷」, 「新羅伽倻文化」第十二輯, (慶山: 嶺南大, 1981), p. 64 參照.

또한 兩親에게 孝心이 지극하고 친척간에는 親睦을 維持하려고 牀疎하<sup>어</sup>였다. 그는 때때로 兄弟들과 더불어 經籍에 關하여 討論하고, 그 심오한 뜻을 究明하고, 이를 暗誦하고 平素 生活의 指標로 삼았다. 항상 子弟들에게 勸學의 뜻을 지니도록 일깨워 주었으며, 聖賢이 남기신 大訓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實踐하는 生活이 되도록 힘썼다. 참으로 선비가 되려면 널리 배워서 해박한 지식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을 법도있게 행함으로써 知行合一이 되어야 함을 強調했다.

光海昏朝를 당하여 李爾瞻一黨의 작폐가 날로 심하여 갈 때에, 鄉里人们이 그를 같은 무리 속에 끌어들이고자 하여, 그를 불렀을 때 분연히 《鋤莠歌》를 지어 이를 一黨의 險計를 꺾었다.

丙辰年 光海君 8년(1616) 3月 朴璥이 44세 되던 해에 父親을 여의고 그哀痛한 바가 극진했으며, 母夫人 英陽南氏를 지성껏 받들었다. 그가 지극한 孝子였다는 것은 年高한 母親을 모시기 위해서 鄉里를 떠난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立證이 된다. 이러한 精誠의 德澤으로 東川의 母親은 天壽를 다하고, 男便의 死後 22년 되던 仁祖 17년(1639) 84세로 世上을 떠났다. 이 때에도 그는 墓側에서 떠나지 않으며 孝道를 다했다.

그의 나이 46세(光海君 10년·1618) 때 戊午年에 이르러 賊臣들이 永昌大君을 살해하고 仁穆大妃 廢妃事件을 저질렀다. 이에 얼마나 痛憤했든지 東川은 癸亥反正(1623年)까지 杜門不出했다. 이 永昌大君을 殺害한事件과 仁穆大妃 廢出의 非行은 忠孝를 人倫의 根本으로 굳게 믿었던 朴璥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큰 충격이었다. 그의 「行狀」에 記錄된 内容을 볼 때 그가 當代의 政治的大事件, 즉 光海君 압정의 표상인 廢母와 殺弟에 대하여 얼마나 경악을 금하지 못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光海亂政이 종식되고 和平한 生活이 營爲되는가 하였더니, 그의 나이 64세 때인 丙子年 仁祖 14년(1636)에 와서는 國家의 運數가 不幸하여 胡兵이 침입하였고, 王은 南漢山城에서의 抗戰을 포기하고 清兵將에게 降服하게 되는 國恥를 맞았다. 朴璥은 이 때에 《傷春辭》<sup>13)</sup>를 지어 敵에 대한 복수심과 痛憤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忠節의 氣像을 보였다.

이어서 그의 나이 66세되던 仁祖 16년(1638) 鄉里에 廿年이 들었는데 近邑의 사람들이 모두 松皮로 연명함을 보고 침통해 했으나, 그는 조금도

13) 《傷春辭》와 同軌로 丙子國恥를 背景으로 한 作品에는 姜復中이 지은 歌辭作品 《爲君爲親痛哭歌》가 있고, 時謂로서는 鄭煦의 《歎江都陷沒大驚出城歌》가 전한다.

處身의 道理를 꺼지 아니하였고, 농봉을 받기 위해서 벼슬길에 나서지도 않았다.

晩年에 들어 季氏가 먼저 世上을 떠나니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人生의 徒 없음을 한탄하고 生死의 길이 다름을 안타까워 했다.

東川의 子弟들이 벼슬길에 나서도록 권유했을 때에 그는 한사코 듣지를 아니하고, 스스로 寒微한 선비로 滿足한다는 것을 強調했고, 朝聞夕死만이 진실로 자신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朴璥은 壯年에 爰知職을 얻어 葍貞으로서 지내다가 孝宗 6年(乙未年, 1655年)에 83세를 日記로 離世하였다. 그의 婦人은 治城 宋綏의 妻님이요, 그들의 슬하에 3男을 두었는데 長男 休復은 將士郎을 지냈고 次男 安行, 막내 安世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内容이 朴璥의生涯를 記述한部分인 바 그는 平生토록 信義를 두텁게 지켰으며 옛날의 風俗과 法度를 좋아하였으며, 일을 처리할 때에는 龍虎같은 氣運이 쏟았고 分數의 밖으로 부려워하거나 사모함이 없으며, 時俗에 구차스레 영합함도 없었으며, 괴이한 말로 실지를 속이며 겉치레를 일체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그는 典型的인 儒學者的性品을 지녔다. 이 當時 在野 士大夫들은 집권세력의 利用物로生涯를 마치는 假道學者가 되고 말거나, 反對로 士大夫의 志操를 굳게 지켜 現實의 모순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오직 학문을 통해 그들의意志를 具現하고자 했었다.<sup>14)</sup> 朴璥은 그 後者에 속하는 人物이다. 그의 「行狀」이나 「家狀」等에 나타난 後人們의 記錄을 보면 특히 그는 不義에屈服하지 않고 正義의 所信을 傳하는 意氣가 있는가 하면, 惡이 이기고 善이 敗할 경우 이를 애통하게 여겨 강개하는 義憤心이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지은 時調作品 《鋤莠歌》의 創作動機와 關聯을 갖는다.

### 3. 文學遺產

朴璥이 詩創作과 글재주가 남달리 뛰어났음은 前項의生涯 및 爲人欄에서 言及한 바가 있다. 그의 文學遺產으로는 「東川逸稿」에 漢詩作品 112首가 실려 있고, 나머지 長文을 포함한 다른 種類의 글까지 합치면 150편이 된다. 그는 花朝月夕의 自然을 대하여 詩筆을 들어 도도한 詩興을 流麗한

14)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서울 : 創作과 批評社, 1982), p. 221 參照.

筆致로 읊겼으며, 日常生活周邊이나 國家社會의 狀況이 喜悲가 교차될  
중에도 서슴없이 끗을 들었던 것이다. 아울러 民族 固有의 名節을 맞아해  
서 그 느낀 바를 읊었고, 어진 관리를 친양하고, 交遊중인 先輩, 親知,  
親友에게 問安을 代身하는 글을 짓기도 했으며, 思親의 内容과 友愛를 노  
래한 詩도 남겼다. 平素 交分이 두터웠던 분들이 世上을 떠나자 이들을  
哀悼하는 挽章을 지었다. 이러한 것들이 朴徵이 남긴 詩文의 内容인 것  
이다.

그의 文集인 「東川逸稿」에 收錄된 作品數와 그 題目을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① 五言絕句 14篇 | ④ 七言四韻 25篇 |
| ② 七言絕句 48篇 | ⑤ 五言長篇 8篇  |
| ③ 五言四韻 26篇 | ⑥ 七言長篇 10篇 |

그밖에 歌詞·辭·序·記·雜著·文 等이 실려 있다.

#### ① 五言絕句(卷第一)

《偶吟》, 《有感》, 《自道》, 《偶吟》, 《題朴仲植水雲亭》, 《贈尹監司正平》, 《重陽次權東巖子守韻》, 《立春》, 《次安謹哉韻二首》, 《贈申獻之二首》, 《二月雪》, 《次度甫鳳來亭四景》, 《贈性全禪師》, 《山寺次申獻之金叔晦集句》。

#### ② 七言絕句(卷第一)

《山中即事》, 《勸學者》, 《聞天啓皇帝聖明喜而有作》, 《壬戌六月積雨聞李任甫來在書堂招舍弟潤甫而去余病不能往吟贈一絕》, 《用前韻戲贈任甫》, 《詠柏》, 《癸亥三月聞反正之奇吟一絕以續康衢老人之歌》, 《次黃進士淨友亭韻》, 《次舍弟潤甫韻寄舒川任所》, 《又贈一絕》, 《浮石寺次申功甫今公韻》, 《悟麓泉上又次前韻》, 《贈金忘高孝仲瀋陽之行》, 《次延陵韻金苟全而和》, 《讀心經由感》, 《又對心經》, 《步前韻贈舍弟粹甫》, 《月夜》, 《春日農家》, 《登一善崔監司亭》, 《次金伯宣韻》, 《偶吟》, 《贈法均二上人》, 《庚寅六月在書堂偶吟》, 《閒居》, 《次贈琴克成》, 《步前韻克成兼示子守》, 《金而吉以川獵見邀與孫上舍誠之舍弟粹甫同往任一夫適來放鷹》, 《伊山交會次權子守韻》, 《次權子守韻贈宋叔度》, 《幽居》, 《夢見込友》, 《季春望月夜》, 《送春日次朴仲植權子守梨花亭韻》, 《秋懷六絕》, 《次金而吉寒泉精舍八景》, 《次郭次玉韻》, 《鋤禾》, 《賞春泳巖》, 《舅氏南德潤有苔字韻步韻題梨花樹一絕》, 《權省之家薔薇盛開仍次省之韻》, 《見復於家後短蘿力一朝而臺之登望開豁可樂因成二絕》, 《輓南河東》, 《次舍弟潤韻》, 《集句》, 《道上吟》, 《次權子守楂亭八絕》, 《遊鳳凰山次金而吉韻》。

#### ③ 五言四韻(卷第一)

《言志》, 《次黃子厚肯堂韻》, 《聞東殿回轍》, 《次金鶴沙孝徵》, 《挽金溪岩子峻》,

《甘谷洞會次李子晦韻》，《醉次朴叔度壁上韻》，《自嘲》，《挽金都事子瞻》，《次張上舍韻》，《次李侯韻》，《南山》，《甲戌秋孫兒等欲移家請邊學官相宅地其名俗呼爲長柱朴余易性爲生欲令子孫長生而久親因成一律》，《金伯溫余景安來訪寓所同往浮石次伯溫韻》，《挽趙荷潭》，《挽李上舍》，《挽金仲亨》，《挽裴凝巖》，《次金而吉韻》，《山寺次金從韻》，《次李子晦韻贈金仲亨》，《挽宋僉知》，《挽金應久》，《挽權行甫》，《挽金元伯內子李氏》，《次裴八斯韻》。

④ 七言四韻(卷第一)

《咏松》，《月松亭次李晦叔韻》，《申汝涉有藏頭體一律仍次以贈》，《次權參判壁上韻》，《山中即事》，《李宜寧丈輓》，《次郭丹谷靜甫韻》，《次新潭諸賢韻》，《次金旌善丈韻》，《次呈外舅》，《挽李致遠》，《次東臺韻》，《書堂吟》，《挽黃主簿》，《偶吟》，《有感》，《權同知龍鶴舞鼓韻》，《聞順興復邑之奇喜而有作》，《次黃東萊韻》，《挽朱公立》，《挽安興陽》，《喜雨》，《挽李善迂堂》，《挽李汝純》，《挽再從姪掌令》。

⑤ 五言長篇(卷第二)

《伏聞新上御極謹次杜子美北征七十韻以叙區區忠愛之忱》，《以夜坐爲題令次龍聯句首一句乃次龍所作因書此以與之使自得其首句之意而所進益也》，《贈金都事重謙求和》，《贈舍弟潤甫松皮歌》，《記病》，《挽權二愚堂》，《朴夏寒亭挽》，《成芙蓉堂挽》。

⑥ 七言長篇(卷第二)

《丁丑記事感吟》，《又用前韻》，《謹和長短句一篇呈丹谷清案》，《權教官挽》，《李省吾堂挽》，《自英陽入寧府道中聯句》，《拜元月》，《懶翁》，《題權養萬盆梅歌》，《戲題彩屏花鳥圖》。

⑦ 書(卷第二)

《答郭靜甫》，

⑧ 記(卷第二)

《蒙泉書堂記》

⑨ 雜著(卷第二)

《烟竹贊》，《義叢序》，《書皆白說後》

⑩ 祝文(卷第二)

《紹修書院慎齋周先生躋享告由文》，《黃池開基告由文》

⑪ 祭文(卷第二)

《祭寒岡鄭先生文》，《祭忘窩金公文》，《祭黃叔堅文》，《祭李而幹文》，《祭金仲亨文》，《祭舍弟判校文》，《祭再從姪掌令文》，《祭從子通德郎文》。

⑫ 上樑文(卷第二)

《伊山書院移建上樑文》，《龜灣書堂重修上樑文》

⑬ 辭(卷第一)

《傷春辭》

## ⑭ 歌詞(卷第一)

## 《鋤莠歌》

한편 朴瑛澤이 지은 「家狀」에 의하면

‘公의 詩稿가 회진되고 그 나머지가 남아 전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後孫들이  
엮어 편찬할 能력이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고 言及한 것을 볼 때, 公이 지은 作品은 遺稿集에 收錄된 外에도 더 散  
在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朴璥은 文보다 詩에 能하였으며, 詩에 있어서는 律보다 絶句를 쓸  
거 다루었다고 하겠다. 이는 그가 복잡하고 長形인 古詩 또는 律詩나 文  
보다는 간편하고 單形인 絶句를 즐겨 다룬 것이 아닌가 한다.

朴璥의 文學遺產에서 國文詩歌作品은 《鋤莠歌》만이 브이나, 國文表記作  
品을 遺稿의 맨 첫 머리에 排列해 둔 點으로 보아, 이런 種類의 作品을 崇  
尚했음이 사실인 것 같고, 現存作品이 더 있을 법도 하나, 찾을 길이 없  
어 아쉽다.

## IV. 《鋤莠歌》

## 1. 原文

朴璥의 時調作品 1首가 그의 文集 所載 〈歌詞〉欄에 《鋤莠歌》란<sup>15)</sup> 題目  
아래 보이는데 그原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旱田에 往호니 가리치오 水田에 往호니 피포길다

爾根이 深호엇노라 誰爲何리요 旱건니와

我도 七八月 鋤末에 刃을 加호면 미역 불가하노라.

## 2. 創作背景

時調作品의 理解에 있어서 그 作家와 作品을 둘러싼 背景이 되는 歌話  
까지를 알 수가 있을 때<sup>16)</sup> 그 깊이를 더하게 된다. 本 作品은 原文紹介에

15) 時調가 〈歌詞〉란 題目下에 실려 있는 경우는 郭期壽의 〈寒碧堂文集〉을 들 수  
있다. 그리고 詩(七言, 五言 漢詩), 歌(漢文)와 併錄되어 있는 點은 歌詞, 詩,  
歌 等의 用語概念을 살필 수 있는 資料가 된다.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研究」, 〈서울 : 世宗文化社, 1972〉, p. 93 參照.

16) 時調作品에 關聯된 歌話은 「歷代時調全書」에 集成되어 있을 뿐이며, 이에 대  
한 體系的研究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學界의 實情이다. 다만 妓女時調의 歌  
話에 대한 研究가 있기는 하나, 學術的 研究書의 性格을 갖추지는 못했다.

金聖培, 朴乙深 著, 「時調詩話」, 〈서울 : 예그린出版社, 1977〉, 序文 參照.

앞서 아래와 같은 歌話가 併錄되어 있어 本作品의 創作動機와 背景을 昭詳히 알려 준다.

昏朝時 鄉隣一二人黨於爾瞻 與其同志者 基川倅會于基之客館 欲爲援引之計以邀公 公不知而往焉 酒一行 四座各以俚語作歌以諷公 公應聲作此歌 以折其陰計 蒲座失色而罷。

즉 光海昏朝時에 榮州近邑의 鄉人 一二人이 李爾瞻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여 一黨을 이루어 基川의 客館에서 基川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계책을 써서 公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公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곳에 갔었는데 술이一行에 돌아가고 사방의 좌석에 앉은 자들이 각각 俚語로써 노래를 지어 公을 諷喻하였는 바, 公이 이에 맞서서 이 노래를 지어 불러서 그 險計를 꺾었다. 이리하여 滿座가 失色하여 罷宴이 되었다.

이렇게 불 때에 本作品은 光海 8年(丙辰·1616) 朴敬의 44세 때에 지은 것이다. 榮州·豐基近邑의 鄉人們이 무리지어 李爾瞻에 同調하고자 뜻을 세우고, 항상 客館에 모여 의논을 하고 이 무리 속에 東川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東川이 그러한 계책을 알지 못하고 客館에 가니 一行이 술을 전하고, 그의 뜻을 떠볼려고 할 때에, 드디어 그가 그들의 참뜻을 알고 이에 맞서 《鋤莠歌》로써 險計를 꺾었다고 한다. 이當時는 權臣 李爾瞻이 王의 총애를 받아 세도를 일신에 모으고 있던 때이라, 國柄을 장악하고 善類들을 모함하고 있는 非行을 目睹하고도, 그 누구도 彙劾上疏를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 朝野의 實情이었다. 그런데도 東川은 忠直의 性品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一黨의 非行을 말하기를 꺼릴 때에 과감히 이러한 諷喻의 뜻을 담은 作品을 지은 것이다.

### 3. 內 容

本 《鋤莠歌》의 原文을 풀어 하여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가물이 든 밭에 가니 가라치요 물이 가득한 논에 가니 피포기로다  
너희들의 뿌리가 심히 길었느노라 누가 어찌 하리요 하거니와  
나도 칠팔월 흐미 끝 날을 가하면 매여 불까 하노라.

《鋤莠歌》는 원래의 單語가 가진 意味 속에 보다 깊은 二重의 意味를 담아 노래한 것으로, 作家는 自身이 처한 時代의 社會的 결합, 모순, 불합리를 지적하고 조소하고자 했으나 정면으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

한 풍유의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이런 諷喻의 方法에 의해서 《鋤莠歌》란 歌題의 뜻을 풀이해 보면, 「鋤」의 用例는<sup>17)</sup> ‘本作鉅, 田器也／以鋤治田曰／誅也, 除滅也」의 境遇가 보이며, 이 가운데 「誅也, 除滅也」의 뜻으로 ‘惡한 사람을 없앤다’가 되고 「莠」는 ‘一年生草, 通稱狗尾草／醜也／凡習於惡者曰莠’의 例<sup>18)</sup> 가운데 ‘惡의 무리’의 뜻이 된다.

위에서 풀이한 바와 같이 歌題에 담긴 뜻으로 보면 《鋤莠歌》는 作家 自身이 惡인의 무리를 根絕하겠다는 決意를 보인 것이고, 위에 紹介한 内容을 가지고 보더라도, 역시 寄托諷喻의 作品에 該當하며, 이는 항상 現實에 대한 否定的 批判的 態度에 基因해서 成立되게 된다.<sup>19)</sup>

이와 關聯하여 《鋤莠歌》原文 앞에도

「…各以俚語作歌以諷公, 公應聲作此歌…」라 했으니

本作品이 諷喻의 性格을 띠우고 불리워졌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또한 作品의 創作背景을 볼 때도 《鋤莠歌》는 光海君이 �即位하여 大北의 李爾瞻等이 國權을 掌握하여 老舊들을 마구 해치는 것을 보고서 憤然히 지은 노래로서, 어진 무리들이 奸臣輩들 때문에 害를 입고 敗退하는 世態를 諷喻의 手法을 使用하여 개탄한 노래에 들어 간다. 이 노래가 지어진 時代는 權勢에 아부하는 奸臣輩들로 인하여 善良한百姓들이 억울하게 辱을 당했던 것이다, 政治의 紀綱과 社會의 法度가 언제나 이들의 놓간에 유린되고 추락되는 昏政의 時期이다.<sup>20)</sup> 이러한 時代에 지어진 것이기에 作家의 意圖한 바가 분명히 作品內容에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각章에 나타난 内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初章은 修辭法上 對偶法을 使用하였다. ‘旱田’과 ‘水田’, ‘가리치’와 ‘피포기’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詩語들은 朝野와 惡의 무리에 比喻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章의 趣意는 朝野에는 惡의 무리에 同調하는 者들이 가득 차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初章의 素材에 植物名을 사용하고 있음은 作家의 父親 朴善長이 지은 《五倫歌》中 ‘父子’項目에서 도 그 例가 보인다.

17) 「辭源」, (臺北: 商務印書館, 1960年版), p. 1528.

18) 위와 같은 책, p. 1268.

19) 李廷卓, 「韓國諷刺文學研究」, (서울: 二友出版社, 1979), p. 6 參照.

20) 光海年間의 腐敗相에 대하여는 民族文化推進會編, 國譯「燃藜室記述」, V, (서울: 景仁文化社, 1977), pp. 233~362 參照.

寸마도 못한 푸리 봄이슬 마존 後에  
님녕고 출기기려 밤나즈로 부려낫다  
이恩惠 하 間極하니 가풀 출을 몰느라.<sup>21)</sup>

위 表現에서 ‘한 치만도 못한 풀’은 子女요, ‘봄 이슬 맞은 후에 잎이  
넓고 출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고 한 것은 父母의 慈愛로 몸과 마음이  
자라서 成熟한 人間이 되었음을 말한 句節이다. 이 가운데 初·中章  
의 表現이 바로 이같은 方法을 使用한 例가 되며, 水西와 東川의 作品에  
나타난 共通點이기도 하다.

中章의 内容은 李爾瞻一黨의 非行을 目睹하고서도 그 어느 누구도 이를  
탄핵하지 않음을 한탄한 것이다.<sup>22)</sup> 中章에 쓰인 重要한 詩語는 ‘爾根’으  
로 重意法이 使用된 것이다. ‘너희들의 뿌리’인 同時に 李爾瞻一黨을 指  
稱하기도 한다. 이 表現은 偶然의 一致는 아니다. 分明한 作家의 意圖가  
内在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中章은 李爾瞻 等의 작폐가 날로 심해 가고,  
京鄉 各地에는 이들 劢勢의 뿌리가 길게 내리어, 昏政의 時期가 繼續  
되어가는 암담한 現實을 그 内容으로 表現한 것이다.

끝으로 終章을 보면 ‘七八月’은 《農家月令歌》의 한 句節인 ‘풀 거두어  
기음터기 벼포끼에 피고로기’(七月令)와 같이 農家の 年中行事와 맞추어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句節 역시 重意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七  
八月’은 惡의 무리들의 뿌리가 점점 자라 무성하게 된 때를 讽喻한 것인  
다. 이어 ‘호미 풀 날을 가하면 매여 불까 하노라’라고 했으나, 作家 自  
身도 傍觀的 内지 諦念의 자세만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들 惡의 무리를  
물리치고 破邪顯正의 밝은 새 날을 여는 한 一行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은  
연중에 보여 주고 있다.

以上이 朴礪의 《鋤莠歌》의 内容이 되겠으나, 本 作品에 나타난 바와 같  
은 現實社會에 대한 寄托諷喻는 他 作品과 比較할 때에 主題의 異소성에  
있어서나, 詩 作品에 담긴 現實批判精神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作家 朴礪이 生存했던 時代는 歷史上 매우 險難했던 한 때  
이기에, 一部의 朝臣들은 임금을 싸고돌고, 權勢를 독천하는 데도 李爾瞻

21) 「水西先生文集」卷之四 第 5 張 所收。

22) 물론 光海年間의 安東人 金是樞 같은 분은 4차례에 걸쳐 李爾瞻을 彙劾하는 上疏를 올린 바가 있으나, 그로 인해 流配의 身勢가 되었다. 註 20)의 冊 p. 324 參照。

이 國柄을 잡고 人材를 謨害하여, 自黨을 廣植하여 그들에게 촉범하는 이들은 모조리 찬축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在野의 書生인 朴璥은 憤然히 일어나 李爾瞻一黨의 전횡, 난정을 調喻하는 내용을 그의 作品에 受容했다는 事實이 朴璥이 남긴 時調作品 《鋤莠歌》의 特徵이다.

한편 共時的으로 볼 때 《鋤莠歌》는 光海君時 北人們의 횡포를 비난하여 창작된 時調인 鄭勲의 아래 作品과 그 性格을 같이 한다.

뒷의로 둥킨 구름 암들해 퍼지기다  
본 함불니 미울지 는이울지 서리울지  
우리는 ㅎ늘뜻 모르니 아모랄줄 모르리라.

(「水南放翁遺稿」, 20—10)

또한 白沙 李恒福이 派黨分子들의 농간과 부당한 사비가 분분하여 비인도적 廢母를 姿行한 李爾瞻, 鄭仁弘 무리의 非行을 調喻的 手法으로 노래한 아래 作品도 《鋤莠歌》와 關聯을 갖는다.

時節이 저려하니人事도 이리하니  
이러하거니 이리 저려 아닐소나  
이런자 저런자하니 한숨 겨워 ㅎ노라.

(「歷代時調全書」, 1772)

#### 4. 形 式

朴璥의 時調는 먼저 構成面에서 特徵을 지닌다. 作品原文 앞에 主題에 附合되는 鋤莠歌라는 歌題가 붙어 있다. 물론 이것은 朴璥의 作品에 局限된 境遇만은 아니다. 孟思誠의 《江湖四時歌》, 李賢輔의 《聾岩歌》, 《生日歌》, 《漁父短歌》가 이에 該當되며, 李滉의 《陶山十二曲》, 李珥의 《高山九曲歌》와 尹善道의 《山中新曲》, 《初筵曲》, 《漁父四時詞》의 境遇도 있다. 古時調는 일부분의 作品들이 歌題가 붙어 있다.<sup>23)</sup> 그런데 聯時調에서 歌題가 붙어 있는 境遇 外에도 短型時調中 作家, 創作動機, 歌話가 分明한 作品은 歌題가 보인다. 이를 歌題가 附記된 作品은 自體의 性格이나 主題를 把握하는 데 도움을 준다. 作家가 그의 作品에다가 歌題를 붙여 둔 것은 自身이 詩歌에 대한 關心度가 그만큼 높았던 것을 立證한 셈이다.

아울러 表現樣式을 통해서 볼 때 朴璥의 時調는 그가 漢詩를 즐겨 지어

23) 沈載完, 「古時調千首選」(大邱: 賢雪出版社, 1969), pp. 233~234.

作品量이 百餘首에 달한 作家이기에, 時調의 創作에 있어서 漢字語를 使用했으며, 이에 비해 순우리말도 즐겨 썼다. 설사 漢字語의 構成이라고 해도 그 表現은 부자연스러움, 진부함, 고루함이나 과장된 修辭法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연스럽게 感情이 表現되고 뜻의 曲盡함을 나타내고 있다. 朴勗의 父親되는 水西 朴善長이 지은 《五倫歌》에서도 유달리 表現이 뛰어난 作品을 찾을 수 있음과<sup>24)</sup> 함께, 朴勗도 父親을 鎮아 文學的 才質이 뛰어났다고 보겠다.

한편 《鋤莠歌》는 短型時調에 속한다. 그러나 音步構成上 다소의 變格의 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從來의 短型時調形式에 구애됨이 없이 比較的 自由로운 形式으로 作品을 構成했다는 말과 통한다. 이는 먼저 생소하리만치 平易한 農村의 生活用語가 作品上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字數의 變格을 가져온<sup>25)</sup> 것이고, 漢字語로 쓰인 句節들에 縣吐한 形式이기에 자연 기본形式에 벗어난 構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朴勗은 위와 關聯지워 생각해 볼 때 時調의 形態發展에 敏感한 분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作品各句가 形式의 制限을 받지 않고 있다는點에서 그러한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短型時調의 形式이 파괴되고 中型時調가 形成된 時期를 明宗代로<sup>26)</sup> 잡는다면 이런 形式은 宣祖朝를 거쳐서 發展, 形成되었을 것이다. 朴勗은 이 中型時調의 發展時期에 本 《鋤莠歌》를 創作한 것이다. 이 點에서 그는 時調形式의 發展과 形成에 남다른 配慮가 있었다고<sup>27)</sup> 보겠다.

## V. 結語

以上 東川 朴勗의 《鋤莠歌》에 關하여 本論 8項目에 걸쳐서 言及한 内容을 要約하여 結論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① 古時調가 收錄된 朴勗의 文集「東川逸稿」는 本攷를 通해서 처음으로

24) 尹榮玉, 「訓民歌系 時調의 一表現」, 『嶺南語文學』第9輯, (大邱: 嶺南語文學會, 1982), p. 120 參照.

25) 이리한 좋은 예는 魏伯珪의 《農歌九章》의 形式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李鍾出, 「魏伯珪의 時調『農歌』考」, 『朝鮮大師範大論文集』第1輯, (光州: 朝鮮大, 1970), p. 1 參照).

26) 徐元燮, 「時調文學研究」, (大邱: 蟒雪出版社, 1981), p. 96 參照.

27) 이 部分의 論旨는 다소 未治하다고 하겠는데, 後日 補完하기로 한다.

具體的으로 紹介된다. 이 文獻은 3卷 1冊으로 되어 있고, 文獻의 性格은 木版本 文集類다. 여기에 時調가 收錄된 部分은 卷第一 歌詞欄이다. 그리고 他文學作品 및 그의 文章으로는 辭, 詩, 長文, 書, 記, 雜著, 祝文, 祭文, 上樑文 等이 收錄되어 있다.

한편 朴敬의 時調 1首 《鋤莠歌》는 他文集과 달리 卷頭에다가 排列해 놓은 特色을 보인다. 이것은 國文詩歌를 崇尚한 編纂意識을 보인 點에서 注目이 된다.

② 《鋤莠歌》의 作家 朴敬은 本貫이 務安이며 號는 東川, 東川處士라고 했다. 父親 水西 朴善長과 母親 英陽南氏 사이에 長男으로 宣祖 6年(癸酉 1573)에 出生하여 孝宗 6年(乙未, 1655)에 爲하였다. 그의 家庭은 先考 때 榮州郡 北花川에 移居하였으며, 그는 外祖父 三松 南夢鰲門下에서 글을 배웠었고 平生을 學問에 盡力하며 平隱한 一生을 살았다. 그는 항상 有詩勸學했고 聖賢의 道를 尋하고 禮를 實踐하였고 했으며 布衣寒士로 滿足했다고 한다. 아울러 東川은 그가 살았던 光海昏朝에 高風峻嶺의 意를 지니고 이를 스스로 行動으로 보여준 문이다.

③ 東川의 時調作品 《鋤莠歌》는 古時調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諷喻時調가 된다.

④ 東川의 《鋤莠歌》는 作家가 44歲時에 지은 것인데 그 해는 光海 8年(丙辰, 1616)이다. 때마침 榮州 鄉人們이 무리지어 李爾瞻에 同調하고자 뜻을 세우고 항상 客館에 모여 의논을 하고 東川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東川이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客館에 가니 술을 취하게 하고서는 무리들이 그의 뜻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가 드디어 그 참뜻을 알아차리고 술을 받고 즉시로 이들에게 맞서서 《鋤莠歌》를 지어 불려 그들의 陰計를 꺾었다.

⑤ 本作品의 内容을 살펴보면 初章은 朝野에 惡의 무리들에게 同調하는 者들이 가득 차 있음을 노래했고, 中章에서는 李爾瞻一黨의 非行을 目睹하고서도 이를 제유할 이가 없음을 한탄한 것이고, 終章은 破邪顯正의 眼은 새 날을 열겠다는 自身의 決意를 隱然히 엿보이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⑥ 東川은 作品構成에 있어서 作品自體의 性格이나 主題를 把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歌題를 붙여 그自身이 詩歌에 대한 關心度가 높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詩語의 選擇에 있어서나 表現手法을 보더라도 不自然, 친부함,

고루함, 과장된 修辭法의 使用이 보이지 않아 그의 文學的 才質이 過人하였음을 立證해 준다. 아울러 그는 從來의 短型時調形式에 구애됨이 없어 比較的 自由로운 形式을 取하여 作品을 構成하여 字數面에서 變格을 가져온으로써 더 真率한 内容이 되도록 했다.

## 參 考 文 獻

### □ 資 料

- 東川逸稿, 木版本, 3卷 1冊, 成均館大, 啓明大 所藏本.  
務安朴氏世譜, 石版本, 17卷 20冊, 國立圖書館 所藏本.  
水西先生文集, 木版本, 4卷 2冊, 成均館大 所藏本.

### □ 單行本類

- 民族文化推進會編, 國譯 燃藜室記述 V, 서울 : 景仁文化社, 1977.  
朴乙洙, 時調詩話, 서울 : 에그린出版社, 1977.  
商務印書館, 辭源, 臺北 : 商務印書館, 1960.  
徐元燮, 時調文學研究, 大邱 : 螢雪出版社, 1981.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서울 : 世宗文化社, 1972.  
\_\_\_\_\_, 時調의 文獻的研究, 서울 : 世宗文化社, 1972.  
\_\_\_\_\_, 古時調千首選, 大邱 : 螢雪出版社, 1969.  
嶺南大大學院, 學位論文概要集 第五輯, 慶山 : 嶺南大, 1983.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서울 : 創作斗 批評社, 1982.  
李廷卓, 韓國諷刺文學研究, 서울 : 二友出版社, 1979.

### □ 論 文 類

- 姜銓燮, 古時調의 現傳作品數에 대하여, 韓國言語文學會 發表要旨, 1966.  
沈載完, 汾川講好歌敍, 東洋文化 第九輯, 嶺南大 東洋文化研究所, 1969.  
尹榮玉, 訓民歌系 時調의 一表現, 嶺南語文學 第 9 輯, 嶺南語文學會, 1982.  
李相寶, 朴善長의 五倫歌研究, 明知大論文集 第九輯, 明知大, 1976.  
李樹鳳, 赴北日記敍(1), 국어국문학연구 第12輯, 嶺南大 國文科, 1970.  
李完裁, 嶺南出身 陶山及門諸子敍, 新羅伽倻文化 第十二輯, 嶺南大 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81.  
李鍾出, 魏伯珪의 時調「農歌」考, 朝鮮大 師範大論文集 第 1 輯, 朝鮮大, 1970.  
林仙默, 水西의 「五倫歌」, 國文學論集, 第 2 輯, 檀國大 國文科, 1968.  
鄭明世, 古時調文獻의 研究,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2.  
洪在然, 石門亭題詠詩歌敍, 曉大研究論文集 第23卷, 曉星女大, 1981.